

# 한국복지패널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과정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Its Structural  
Features and Development*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지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올해로 10년째를 맞는 한국복지패널 이용자들의 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의 구조적 특징과 주요 변화내용을 소개한다. 한국복지패널은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와 공동운영하는 점, 국내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가장 큰 표본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빈곤연구에 적합하도록 저소득 가구가 과대표집된 점, 다양한 복지정책을 조사문항에서 포괄하고 있는 점, 국제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됐다는 점 등의 특징을 가진다. 특히 조사내용은 지난 10년간 여러 차례 수정·보완을 거쳐 확립되었으며, 최근에는 중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가능한 한 변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앞으로 한국복지패널은 패널조사로서 시간의 누적에 따라 당연하게 될 이슈들에 대한 대안 마련에 보다 집중할 것이다.

## 1. 들어가며

2006년 첫 조사가 실시된 한국복지패널이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1997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8년째를 맞은 한국노동패널에 이어서 10년을 넘긴 패널조사가 되었다. 우선 10년을 맞은 한국복지패널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간단히 짚어보자. 1998년 국민연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큰 대적인 복지제도의 큰 축이 마련되었다. 이 같은 사회정책의 변화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이 양산되고, 사회양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사회

정책의 확대는 관련 연구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동시에 촉발했다. 이후 새로운 제도의 효과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많아졌고, 제도효과의 동학에 대한 관심도 촉발되었다. 이 같은 연구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이 만들어졌다.

강산이 한 번 변하는 시간을 보낸 한국복지패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변모해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선 10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자료의 맥락을 이해하고, 활용의 폭을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난 10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복지패널이 그동안 자리 잡는 데까지 나름의 역로(歷程)를 소개하는 역할도 되겠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복지패널의 구조적 특징과 그간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을 소개하고, 조사문항이나 표본 등의 주요한 변화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한국복지패널이 앞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들을 덧붙이고자 한다.

## 2.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구조적 특징

### 1) 운영체계

한국복지패널은 기존에 각기 운영되고 있던 3가지의 패널조사가 통합되면서 탄생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3년부터 저소득 근로능력 가구를 중심으로 한 자활패널(보건복지부 용역)을 구축하고 있었고, 2005년부터는 차상위를 포함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차상위·빈곤패널조사(일 반사업)를 시작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2005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복지패널조사(보건복지부 용역)를 시작했다. 그런데 3가지 패널 모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이것은 예산비효율이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었다. 또한 예산계약으로 인해 유효 표본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도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 3자간 협의를 통해 3가지의 패널이 통합되면서 대규모 패널구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복지패널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컨소시엄 형

태를 통해 공동수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 같은 체계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조사문항 검토, 분석, 학술대회 진행 등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 2) 표본

#### (1) 가구단위 최대규모 패널조사

한국복지패널은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에서 가장 큰 표본을 가지고 있다. 표본이 클수록 통계학적으로 표본오차를 줄일 수 있고, 인구하위집단(예컨대, 장애인, 노인, 청년,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한국복지패널은 상기의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1차 조사에서 7,022가구를 패널로 구축했다. 차수가 거듭될수록 조금씩 소실이 발생해 금년도 10차 조사에서는 4,760가구가 남아 67.3%의 원표본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7차 조사에서 신규패널로 추가된 1,800가구 중 1,571가구가 남아 10차 조사까지 총 6,914가구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과 같이 가구단위의 대규모 패널조사 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노동패널과 재정패널이다.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5,000가구로 시작해 12차 조사에서 1,415가구를 추가한 이후 현재 4,840가구를 유지하고 있다(17차, 2013년 기준). 재정패널의 경우 5,634가구(2차년도에 추가된 620가구 포함)를 원표본으로 출발해서, 현재 4,451가구(6차, 2013년 기준)를 유지하고 있다. 두 패널에 비해 한국복지패널은 약 2천에서 2천5백

이상의 가구를 패널로 보유하고 있다<sup>1)</sup>. 또한 이 두 패널의 경우 제주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복지패널의 경우는 제주도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국 대표성 측면에서도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 (2) 빈곤 및 복지연구에 최적화된 표본구성

한국복지패널이 다른 패널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특징은 저소득층 과대표집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07년도 최저생계비 계측을 위해 실시한 '2006년 국민생활실태조사'에서 파악된 약 24,700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저소득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해서 표본을 추출했다. 모집단의 구성과 달리 저소득가구를 50%로 추출함으로써 저소득층 과대표집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당시 소득구분은 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 결과 한국복지패널은 중위소득 60% 미만의 저소득층이 전체 표본의 50%를 차지하는, 국내 패널조사 중·저소득층을 가장 많이 포괄하는 패널조사가 되었다. 7차 조사에서 추가된 1,800가구 역시 저소득층이 50%가 포함되도록 표집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다양한 인구, 사회, 경제적인 특징을 세밀히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실제 한국복지패널은 저소득층의 경제활동, 복지수급, 정신건강, 사회참여 등을 보고하는 다양한 연구에 두루 활용되고 있다.

저소득층 과대표집에 따른 어려움도 있다. 저소

득층을 과대표집하는 과정에서 노인가구, 특히 노인 단독가구가 많이 포함되었는데, 10년째 접어들면서 이들의 고령화로 인한 표본손실이 일어나고 있다. 패널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3) 조사문항

### (1)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조사문항

조사표는 크게 가구용, 가구원용, 부가조사의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2차 조사 이후에는 전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원)의 경우 원가구(원)용을, 해당 연도에 분리(신규진입)가 이루어진 가구(원)의 경우 신규가구(원)용을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신규 가구용, 원·신규 가구원용, 부가조사의 총 5종의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다.

부가조사는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 등 세 주제에 대해 3년 주기로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순환주기에 따라 1차/4차/7차/10차 조사에는 아동 부가조사, 2차/5차/8차 조사에는 복지인식 부가조사, 3차/6차/9차 조사에는 장애인 부가조사가 이루어졌다. 각각의 조사표가 포괄하는 조사영역은 <표 1>에 정리가 되어 있다.

### (2)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포괄하는 조사문항

한국복지패널 조사 영역이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위의 표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건강보험과 공적연금을 비롯한 사

1) 타 패널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복지패널의 규모가 크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한국노동패널이나 재정패널 등 모든 패널조사자료는 각 조사들의 목적하는 바와 그에 부합하는 데이터의 질로써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며, 표본규모로 조사의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주의하기 바란다.

표 1. 조사영역

조사표 구분		조사 영역	
가구용 (원·신규)		I. 가구일반사항 II. 건강 및 의료 A III. 경제활동상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V. 의료 B VI. 주거 VII. 생활비 VIII. 소득 IX.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X. 재산 XI. 생활여건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1. 근로장려세제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I. 가족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B. 근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F. 교육(신규가구원용에만 포함됨) G. 개인사(신규가구원용에만 포함됨)
부가조사	아동 부가 조사	A. 현재 상태 B. 나의 학교생활 C. 나의 생각과 행동 D. 우리 부모님	E. 나의 친구 F. 나의 건강 및 생활 G. 나의 아르바이트 경험 및 활동 H. 나의 진로
	복지인식 부가조사	I.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II. 복지자원 및 대상범위	III. 정치참여와 성향
	장애인 부가 조사	(공통) 장애 원인 및 상황 (공통II) 일상생활 (개별 I) 미취학 아동 설문(만 0세~초등학교 입학 이전) (개별 II) 학생(초등학생~고등학생)설문 (개별 III) 성인(만 18~65세 미만)설문 (개별 IV) 어르신(만 65세 이상)설문	

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제, 노인·아동·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사회복지제도가 포괄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회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퇴직금/퇴직연금, 건강보험
- 주거복지: 영구임대주택, 공공(국민)임대주택, 전세자금(용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 저소득층 월세지원,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근로자·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이유, 급여수급이력, 급여에 대한 만족도 등
- 근로장려세제
- 복지서비스: 생계비, 의료비, 물품지원, 가정봉사 서비스, 주택관련 서비스, 직업훈련·취업상담·취업알선, 상담서비스, 각종 대출·융자, 개인발달계좌, 각종 바우처<sup>2)</sup>, 장기요양보험 등
- 노인가구 복지서비스: 기초연금, 의료비, 무료급식, 가정봉사 서비스, 노인일자리사업

등 11종

- 아동가구 복지서비스: 공공어린이집,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 방과후돌봄 서비스 등 10종
- 장애인가구 복지서비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의료재활서비스 등 13종

### (3) 국제화를 겨냥한 조사방향

한국복지패널조사는 미국의 PSID, 영국의 BHPS, 독일의 GSOEP, 유럽의 ECHP(지금은 EU\_SILC), 캐나다의 SLID, 호주의 HILDA 등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패널조사 자료를 참고하여 만들어졌다. 사회정책의 국가간 수렴, 그리고 국제 비교 연구의 확대 등은 해외의 대표적인 패널조사와 비교가능하도록 한국복지패널을 설계하는데 주요한 점을 두게 된 주요한 이유다. 처음 복지패널 조사 방향을 설계할 때 외국 패널조사의 방향을 검토하고, 가능한 선에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에도 한국복지패널 이용자들로부터 조사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국제비교 가능한 모듈을 수용하는 작업을 계속해왔다<sup>3)</sup>. 2013년부터는 조사표와 데이터 영문화 작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다. 금년도 학술대회에서는 영문화가 완료된 주요 변수를 이용한 해외연구자의 발표 세션도 마련되었다.

## 3. 변화과정

### 1) 표본

전술했듯이 한국복지패널은 2006년 7,072가구를 원표본으로 출발했다. 10차에 걸쳐 원표본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본이 추가되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조사가 완료된 10차 조사 기준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67.3%로, 전년도 원표본 가구 유지율 69.2%와 비교해서는 약 1.9%포인트 감소했다. 금년도의 원표본 가구 조사완료율은 전년도 원표본 4,896가구 대비 4,760가구 완료로 97.2%에 달한다. 2012년 7차 조사에서는 2~6차 조사 당시 소실되었던 원표본 가구 중 총 66가구를 복원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신규 패널 1,800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7차 신규패널 1,800가구 중 10차에서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분가 37가구를 포함하여 1,571가구다(소실 266가구). 10차를 기준으로 총 조사대상 7,188가구 대비 조사완료된 총 표본가구는 6,914로, 조사완료율은 96.2%다.

전술한 아동, 장애인, 복지인식 부가조사는 별도의 표본을 가지고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한 차례 씩 표본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먼저, 아동 부가조사의 경우 금년도 10차 조사에서는 표본이 교체되었다. 이유는 1차/4차/7차 당시 조사대상(1차: 초등학교 4,5,6학년 재학 아동)

2)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가사간병 방문관리사지원사업,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등 10종

3) '한국형 식품보장 측정도구(K-HFSSM)'를 바탕으로 한 '한국 간략형 식품보장 측정도구(6 item short-form K-HFSSM)'의 6문항, '미국 간략형 식품보장 서베이 모듈(6 item short-form US-HFSSM)'과 연계

표 2. 1~1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수행 결과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기 존 패 널	원표본 가구	원표본 가구수	7,072	6,511	6,128	5,935	5,675	5,335	5,271	5,104	4,896	4,760
		원표본 유지율	100.00%	92.07%	86.65%	83.92%	80.25%	75.44%	74.53%	72.17%	69.23%	67.31%
	분가 가구	전체 분가가구	-	69	186	272	359	400	461	515	542	583
		전 체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5,619	5,438	5,343
신 규 패 널	원표본 가구수		-	-	-	-	-	1,800	1,690	1,594	1,534	
	분가 가구	전체 분가가구	-	-	-	-	-	-	3	16	37	
	전 체		-	-	-	-	-	-	1,800	1,693	1,610	1,571
조사완료 총 표본가구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7,312	7,048	6,914	

이 10차 조사에서는 성인기로 이행하였기 때문이다. 성인기로 이행한 아동을 추적조사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는 하지만 아동조사의 본질을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시점의 아동코호트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한 데이터 구축의 의의 등을 감안하여, 10차 조사에서는 2015년 3월 기준 초등학교 4~6학년을 신규 아동 부가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것이다.

장애인 부가조사도 2014년 9차 조사에서 일부 표본을 재추출 및 추가하였다. 3차 및 6차 장애인 부가조사에 한 번이라도 응답한 적이 있는 장애인 과 더불어 8차년도 조사의 15세 미만 장애인 가구원 전원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 바로 이전 장애인 부가조사에 참여한 자료만 조사대상을 제한하게 되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가 있거나 조사가 거둬질수록 조사대상자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미취

학 및 학생 아동 설문 대상자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9차 장애인 부가조사 대상을 6차 장애인 부가조사 참여자 로만 한정할 경우 15세 미만 장애아동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표본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다.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경우 가장 최근 조사인 2013년 8차에서 표본에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2차/5차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경우 표본이 표본가 구 내 모든 가구원이 아니라 가구주와 배우자 중 1명 또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결과의 해석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8차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하고 추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표본설 계 대안을 마련하였는데, 7차 전체 표본가구 중 지역별/계층별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표본 가구 내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 2) 조사내용

한국복지패널은 2015년 현재 10차까지 조사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만큼 그동안 조사표의 내용 또한 여러 차례 보완과정을 거쳐 왔다. 초창기인 1차~2차는 조사표 구축 단계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3차~4차에 이르러 현재 조사표와 보다 유사한 모습을 띠게 되었고, 이후에는 제도 시행여부 및 연구 수요에 따라 지속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8차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7차까지는 주로 조사표의 내용이 추가 혹은 세분화되어왔다면, 8차에서는 조사분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조사 문항이 계속해서 확장될 경우 조사표 분량 및 조사 시간의 측면에서 볼 때 조사 불응으로 인한 표본의 탈락이나 조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일정한 검토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사 분량을 축소하였고,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조사표의 기본 두 축인 가구용과 가구원용 설문을 중심으로 주요 변화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조사 영역

조사표의 변동은 크게는 조사영역 자체가 추가 혹은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표 3). 먼저 가구용 설문을 보면,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의 수급 및 효과 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위해 조사영역이 신

설된 경우를 볼 수 있다. 2009년 4차 조사의 '근로장려세제<sup>4)</sup>'와 2011년 6차 조사의 '희망키움통장(근로소득장려금)<sup>5)</sup>' 영역이 바로 그런 예이다. 그리고 2012년 7차년도에 '가구의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전망'이 추가되는데, 이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와 복지논쟁 속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의식과 태도 분석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해당 조사영역의 내용 보완을 위해 가구원용, 아동 및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 일부 영역이 추가되었다.

이와 같이 추가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삭제된 영역도 존재한다. 가구용에서 각각 6차와 7차 조사 시 추가되었던 '희망키움통장'과 '가구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전망'은 다음 해인 7차와 8차 조사에서는 삭제되었다. '희망키움통장' 설문은 해당하는 가구가 5케이스 미만으로 분석의 의미가 없었으며, '가구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 인식과 전망'은 8차 조사표 검토과정에서 삭제되었다. 8차 조사에서는 이 밖에도 다수의 문항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사내용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조치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사문항 변화에 대한 설명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영역 자체가 아예 삭제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는 모든 가구원이 응답하도록 하였다가 매년 반복해서 설문할 필요가 없는 영역에 대해 신규 가구원만 응답하는 것으로 변경된 경우가 있다. 가

4) 근로장려세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2008년 도입되어 2009년부터 지급이 시작되었다.

5) 희망키움통장 및 근로소득장려금은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 제고 및 탈빈곤 기반으로써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구원용 조사표 중 아동기 성장환경 및 직업이력과 부모 등에 대한 '개인사' 영역은 2차 이후 원가구원 용 조사표에서는 삭제하고, 신규가구원용에만 포함하였다.

(2) 조사 문항

조사영역의 변화경향은 세부 문항 변화에서도

역시 유사하게 드러난다. 한국복지패널은 모든 가구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비롯하여, 경제활동, 경제적 여건, 기타 가구여건 및 복지욕구, 사회보장 가입·수급 현황 등 조사주제가 매우 포괄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조사문항 및 항목들도 계속 추가 및 세분화되면서 보다 더 다양하고 세밀한 분석이 가능해졌다.

표 3. 조사영역의 변천과정

조사표 구분		조사영역			
가구용	1~3차	I. 가구일반사항 II. 건강 및 의료 A III. 경제활동상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V. 의료 B VI. 주거	VII. 생활비 VIII. 소득 IX.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X. 재산 XI. 생활여건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I. 가족	
	4차	XII-1. 근로장려세제(추가)			
	6차	XII-2. 희망키움통장(근로소득장려금)(추가)			
	7차	XII-2. 희망키움통장(근로소득장려금)(삭제) XII-2. 가구의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전망(추가)			
	8차	XII-2. 가구의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전망(삭제)			
가구원용	1차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B. 근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F. 개인사	
	2차	F. 개인사('원가구원용'에서 삭제, '신규가구원용'에만 포함)			
	3차	F. 교육('신규가구원용'에 추가) G. 개인사(순서 변경)			
부가조사	아동용 (1,4,7, 10차)	1차	A. 나의 학교생활 B. 나의 생각과 행동	C. 우리 부모님 D. 나의 친구 E. 나와 나의 가족	
		4차	E. 나와 나의 가족 → E. 나의 건강 및 생활 F. 나의 아르바이트 경험 및 활동(추가) G. 나의 진로(추가)		
		7차	A. 현재상태(추가)		
	복지인식 (2,5,8차)	2차	I.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II. 복지자원 및 대상범위	
		5차	III. 정치참여와 성향(추가)		
장애인 (3,6,9차)	(공통) 장애 원인 및 상황 (공통) 일상생활	(개별) 미취학 아동(만0세~초등입학 이전) (개별 II) 학생(초등학생~고등학생) 설문	(개별 III) 성인(만 18~65세 미만) 설문 (개별 IV) 어르신(만 65세 이상) 설문		



표 4. 조사주제별 세부내용

주제	세부주제
가구원 일반사항 및 개인사	가구원 인구사회학적 특성, 개인사(아동기 경험, 직업이력, 학력 등), 부모특성
근로능력 및 경제 활동경험	직업이력, 근로능력 및 경제활동상태, 일자리 특성, 취업·미취업 경험, 고용지원 프로그램 이용경험
경제적 생활실태	소득, 지출, 재산 및 부채, 기초생활여건
가구여건 및 복지 욕구	건강 및 의료, 주거, 아동 건강 및 보육·교육, 기타 가구특성
사회보장 가입 및 수급 현황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가입 현황 및 수급 경험 등
기타 생활실태 및 의식	기타 생활여건,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 부부·가족관계, 사회적 자본, 성역할 의식, 복지 인식 등

주요 변화 경향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출/소득/재산 등 가구의 경제상황을 보여주는 문항들의 경우 세부분류별로 그 유무뿐만 아니라 규모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생활비'의 경우 1차에서는 식료품비와 보건의료비로 지출비목이 한정되어 있었지만, 2008년 3차부터는 현재 조사표와 같이 구성되면서 세부비목별로 지출을 파악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로는 그 분류 내에서 일부 세분화되는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 '재산'과 '부채 및 이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차 조사에서는 예컨대, 부동산 중 소유부동산과 점유부동산과 같이 중분류별 재산액까지만 파악이 가능했다면 2차부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주택, 건물, 토지 등 하위분류별 금액까지 파악하였다. '소득'도 역시 사회보험 및 정부보조금 등 원천별 소득의 경우 2차부터 세부항목별로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는 정부보조금의 경우 각종 제도시행 여부 등에 따라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었다.

이 밖에 문항 추가 및 세분화가 주로 이루어진 영역을 살펴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제도 자체의 신설·폐지에 따른 변화에 대응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및 수급 관련 문항들을 들 수 있다. 사회보험 영역 중에서는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 가입과 관련된 일련의 문항들에 대해 2차부터 질문 체계를 변경하였다. 1차 조사의 경우 한 문항에 서로 다른 수준의 질문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2차부터는 기존 6개 문항에서 10개 문항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단계적인 체계로 구분한 것이다. 이 밖에 기초보장 및 기타 공공부조성 제도와 관련해서도 보다 상세한 현황 파악을 위해 문항을 추가 혹은 세분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도 확대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등의 영역을 신설했던 것처럼, 특히 복지서비스 영역에서는 바우처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의 도입 및 확대에 따라 세부 제도들이 추가·보완되

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복지제도 및 서비스가 확대 되고, 연구영역별로 세부 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면서 조사의 내용도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장되어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가능해졌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표의 양이 방 대해짐에 따라 표본의 누락 및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8차에서는 조사표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1, 2차의 경우 조사표 구축이 여전히 진행되었던 시점으로 보고 주로 조사표가 완전히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는 3차 조사 이후 추가된 문항과 응

답률이 매우 낮아 분석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문항 들을 중심으로 검토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및 서울대 사회복지 연구소의 복지패널 연구진을 비롯하여 복지패널 협의회<sup>6)</sup> 위원들이 각 영역 조사내용의 활용도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를 주게 되었다.

가장 주된 변화는 복지서비스 이용 영역에서 만족도 설문을 삭제하고, 다른 영역에서도 유사하게 주로 의견조사에 해당하는 문항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서비스 이용 만족도 등의 경우 이용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응답률이 매우 낮아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웠으며, 복지 등에 대한 인식 관련 문항의 경우에는 조사표상 지면을 많이

표 5. 2013년 8차 조사에서 삭제된 문항

유형	영역	삭제 및 변경 문항
가 구 용	VI.주거	주거복지사업별 만족도(6문항)
	XII-2.가구의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전망	가구의 계층의식(1문항) 가구의 경제상황 인식(50문항) 복지 및 사회문제 인식(40문항)
	XIII.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12문항) 바우처서비스 이용만족도 및 본인부담금(10문항) 장기요양보험급여 및 서비스 이용만족도(8문항)
	XIV.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노인가구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11문항)
	XV.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아동가구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10문항)
	XVI.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장애인가구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15문항)
가 구 원 용	B.근로	미취업자 구직상 어려움(18문항→1문항으로 척도 변경)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만족도(11문항) 고용지원 프로그램 참여기간(10문항) 고용지원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5문항)
	C.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경제적 생활실태 인식(3문항) 복지인식(1문항)

6) 한국복지패널은 패널의 특성상 지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인 바, 본 사업의 주관부서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내에서 '한국복지패널 협의회'를 운영하여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 및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다.

차지하지는 않지만 문항수로는 약 100개나 되어 조사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된 부분이다. 이 외에도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된 경우 통합하였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기존 문항 중 소득 및 지출 등의 경우에는 매우 세세하게 세분화되어 있으나 이러한 항목들은 문항을 하나 바꾸게 되면 전체 소득이 바뀌는 위험때문에 조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8차 조사 이후에는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에도 조사표 수정, 특히 문항 추가와 관련해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협의회 및 서울대와의 운영위원회의 협의 하에 보다 엄격한 과정을 준수하여 차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사표가 방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종단분석을 주 목적으로 하는 패널조사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

## 4. 나가며

이상에서 한국복지패널의 표본과 조사문항을 중심으로 구조적 특징과 주요 변화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지난 10년간의 역로(歷程)와 관련된 현안

들을 되짚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복지패널 이용자들이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자료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에서 가구단위 패널 중 가장 대규모 조사이며, 제주도와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전국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빈곤 및 복지 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복지패널이 지난 10년간 수많은 보완·개선과정을 거쳐 발전해온 만큼 시간이 흐름에 따라 패널조사의 특성상 몇 가지 도전과제들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패널의 고령화와 조사의 높은 난이도 등에 따른 표본 소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현재 주로 횡단분석에 치중된 자료이용 패턴을 종단분석 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한국복지패널 연구진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따라서 패널자료의 이용자들의 자료이용 패턴에 대한 모니터링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사 10년을 맞은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자료 생산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앞으로의 안정적인 패널운영을 위한 방안을 찾는 데 연구의 역량이 배분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